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29호 현대불교  
2009년 4월 29일(음력 4월 5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 A27

# 부부시간도 자식시간도 모두 내 탓으로 돌려야

매달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해 왔는데,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오전에 법회가 있고 오후에 또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을 너무 괴롭히고 피곤하게 하지 않나 하고요. 그러나 한편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다른 절에서는 백일기도도 하고, 또 삼천 배도 하고, 백팔 배도 하고, 이렇게 며칠 지내는 거는 그렇게 분장하여 생각 안 하고 모두를 하는데 하루 동안이야 어쩌라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습니 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든지 어려운 게 없지만 하기 싫은 거를 하려면 단 일분일초도 힘이 들죠.

그리고 또 이 달은 어린이 달도 되고 어버이 달도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정해 놓은 날이 5월달이니만큼 옛날에...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하죠. 모두가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아님이 없노라고. 그것은 왜냐하면 미생물에서부터 수없이 거듭 거듭 진화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거쳐 왔기 때문입니다. 수억억 광년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 오면서 거듭 거듭 돌아 나왔으니 지금 현생의 어머니 아버지란 부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의 부모를 남의 부모로 생각지 말고, 내 부모 아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모두가 모자랐을 때의 내 모습과 같고 내 생명 같죠. 더 자세히 말한다면, 여러분 몸속에 천차만별의 모습과 생명과 의식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그 생명들의 집합소이며 집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라고 할 수 없으니만큼 될 수 있으면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수억 겁을 거쳐 오면서 자식이 됐다가 부모가 됐다가 하면서 내려온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몸속에 모두 주둔하고 있는 자체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재는 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더불어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이 남의 집을 아무렇게나 굴러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죠. 정자, 난자를 빌려서 삼합이 합쳐져서 이렇게 형성된 몸뚱이를 자기 몸뚱이 줄 알고 착각하고 아무렇게나 굴린다면, 그것은 일체 만물에게도 미안한 점이지만 수억 겁을 거쳐 나오면서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됐던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게 되고, 그 모습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부모한테 정자, 난자를 받은 은혜, 그것에도 보답이 아니 된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생시 생애 속에서 '부모는 항상 자식들한테 단점을 보이지 말라. 자식의 탓을 하지 말라. 부부시간에 서로서로가 내 탓으로 돌려야 한다. 내 탓으로만 돌린다면 언제나, 싸우는 일이 없고 화목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은연중에 자식들이 배운다. 효도를 강요하거나 잘살라, 올바르게 말하라, 올바른 행동을 하라 하고 강제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깁니다. 위에서 스스로 함으로써 은연중에 자신들도 그렇게 물이 들어가고, 그렇게 배워 나가고, 그렇게 다지고, 그렇게 지니고 행동하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를 형성시킬 때면 바로 자기 종자를 자기가 형성을 시키고 자기 견데기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깻조자리가 깻을 내놓고, 깻조 자리는 없어지고 깻이 심어져서 다시 깻씨가 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는, 평생시에 자식이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말하면서 올바르게 행동하면 그걸로써 자기의 재산이든 마음이든 몽땅 다 쥐고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자식을 보면 참 기특하고, 말 안 해도 그렇게 해 나가니까 감사하다는 마음이 부모한테 들면 그게 바로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생각을 해 주는 그 은혜는, 항상 생각을 내면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대로, 가고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전달 되고 통신이 되고 그렇게 해서 빛진 게 없이 서로가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있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못된 짓만 하고, 엉뚱한 데다 돈을 버리고, 또 엉뚱한 짓을 해서 빚을 지게 되니까 집을 팔아서 갚게 되고, 이렇게 해서 끝내... 한두 번은 그래도 자식이니까 감싸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내버린 자식과 같이 부모의 마음에서 떠난 자식이 있죠.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마음에서 이미 떠난 자식이요. 부모 마음에 그런 마음을 들게 하면 그런 은혜를 갚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러더러 돈을 벌어서 호의호식을 시켜 드리는 것이 빚을 갚고 은혜를 갚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흠족하고 그냥 '그저 저만하면 우리 자식은 됐어.' 이 정도로만 마음을 갖게 해 드리면 그게 효도입니다. 효자고 효녀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되고 못되고는 그 가정의 부모한테 달려 있습니다. 효자가 나느냐 안 나느냐도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종자에 따라서, 배기무우나 장다리무우냐에 따라서 씨의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안 그렇까요? 공을 들어서 1년을 묵혀서 배기무우로 만들어서 열무를 심으면 장다리가 앉지 않습니다. 무우만 덩그러니 생기고요. 그러나 그냥 잡종 무우씨를 심어 놓으면 열무가 나는데도 장다리가 빠져죽하게 나와서 꽃부터 먼저 피죠. 그러면 그건 열무도 못 먹고 무우도 안 생깁니다. 그와 같습니다.

는 거지, 내가 없는데 무슨 부부가 있으며 자식이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부모가 있었습니까? 내가 없었습니까? 모두 있는 거니까, 잘했든 못했든 내 탓이지 어찌 남의 탓으로 돌리십니까? 남의 탓으로 돌려야 마십시오. 그대로 내 탓으로 돌려서 그대로 거기다 놓는다면 그냥 입력이 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 입력이 된다면 앞서 그 그릇에 입력

을 한다면 고가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없다고 생각하라 이러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려요. 고정되게 움직여야 하는 것도 없고, 고정되게 보는 것도 없고, 고정되게 듣는 것도 없다. 그러니 어느 것 볼 때 내가 봤다고 하며, 어느 것 들었을 때 내가 들었다고 할 수 있으려. 어느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만났다고 하며, 어느 거를 할 때 내 몸뚱이가 했다고 하라. 이런 소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옛날에 어느 스님께서 제자를 뵈는데 그 제자가 "여기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산에다 토굴을 짓고서 공부하겠습니까." 하고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가서 공부를 하되 남의 생명을 배지 말고..." 나무를 베지 마라 이 소리죠. "남의 생명이 있는 땅을 밟지 말고, 남이 짠 옷을 입지 말고, 남이 농사지은 음식을 먹지 말고, 일체를 먹지 말고 공부할 수 있으면 해라."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것이 더불어 같이, 안도 더불어 같이 살고 바깥도 더불어 같이 사는 공생(共生)이로구나! 공생(共生)·공심(共心)·공체(共體)·공용(共用)·공식(共食)으로 사는 이 세상이로구나!' 하고 단념을 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아주 감개무량해서 그때부터는 남을 의식을 안 하고 내 마음과 같이 생각하고, 내 모습과 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더불어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도 지금 현재의 진리대로... 내가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억 겁을 거쳐 나오면서 내가 무엇이 돼서 한 철을 살았고, 무엇이 돼서 한 철을 살았고, 무엇이 돼서 한 철을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바로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다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어찌 어떤 생명을 알볼 것이며, 어떤 생명을 내 생명같이 생각을 하니 하시겠습니까? 생각하면 천차만별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천차만별로 모습이 다르고, 천차만별로 마음이 다르겠지만, 그 천차만별의 모습과 천차만별의 마음은 바로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식이 나쁘니 좋으니, 잘못하느니 잘하느니,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느니, 내가 부모한테 효도를 못했느니 이러한 생각을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내 주인공에다 다 놓고 같이 한마음으로 하신다면,

☞ A28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여기 신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라라고 믿습니 다만 자식을 기르면서 너무 많은 단점을 보이고, 화가 난다고 애들한테 포악하게 하고, 그냥 귀찮아하고, 또 막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일이 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은연중에 속에 지니게 되고, 유전이 되고, 그대로 말로 나오고, 행동이 되고,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밤에 그 나뭇잎이라는 속담도 있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시간이나 자식시간이나 이렇게 사사라고 항상 말씀해 드려요. 부부시간도 자식시간도 모두 내 탓으로 돌려야. 못했든 잘했든 내가 생겨났으니 바로 상대가 있고 자식도 있고 부부가 있

이 된 것은 전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기정 사실입니다.

심성의학이며 심성과학이며 심성천체물리학이며, 모두가 마음이 아니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사대 성인들이 '너부터 알아라. 너부터 믿어라. 너부터 믿어서 너부터 안다면 삼천 년 전도 알고 삼천 년 후도 알 수 있다.' 라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삼천 년이라 하면 그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도 알 뿐만 아니라 미래도 알고 현재도 그냥 합해서 모두가 공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정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정됨이 없이 그대로 여여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살림살이에 고(苦)가 있다는 생각

불기 2553년 4월 8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은누리에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 大韓佛敎曹洞宗

宗正 智明 德瓚

總務院長 大隱 德牛

中央教育院長 光 慧

中央護法院長 慧 泉

中央布教院長 優 潭

禪院長 眞 一

中央律院長 雲 潭

中央宗會副議長 雲 性

中央宗會副議長 知 遠

僧正院長 恒帝. 德周

中央監察院長 德性 行性

서울宗務院長

京畿宗務院長

江原宗務院長

忠北宗務院長

忠南宗務院長

嶺東宗務院長

慶南西宗務院長

慶南中宗務院長

嶺南宗務院長

慶北宗務院長

南海宗務院長

釜山宗務院長

法 空

慧 覺

日 長

法 空

慧 空

法 光

慧 玉

雲 鶴

清 雲

道 一

中央宗會議長 海倫 行峰

僧正副院長

僧正委員

僧正委員

僧正委員

僧正委員

副院長

總務部長

財務部長

敎務部長

糾正部長

心 月

圓 峰

法 空

慧 公

清 潭

眞 法

古 牛

法 蓮

海 權

社會部長

監察部長

布教部長

文化部長

敎務局長

財務局長

社會局長

糾正局長

文化局長

監察局長

慧 山

慧 明

素 圓

月 峰

月 光

清 淨

法 文

松 潭

平 潭

道 賢

■ 총무원 : 서울 노원구 상계 4동 산154번지 전화 02)2091-0408